큰스님

(강릉 보광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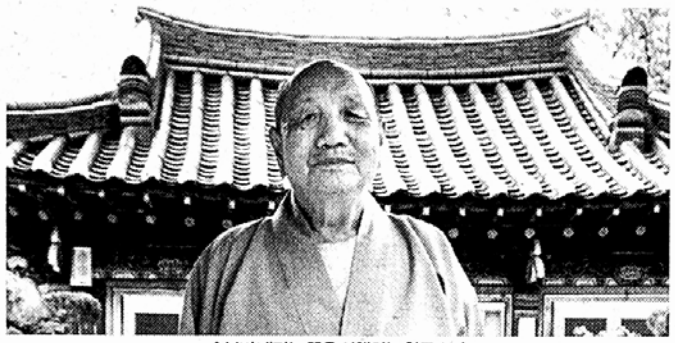
지키면 세상 훨씬 따뜻

日유학승 생활 3년…77년 보광사 창건 · 주석

창조스님은?

1913년 동해 삼화리에서 출생했다. 법호는 등운(騰雲). 시절이 그러했듯이 17세에 보통학교를 마치고 18세에 월정사 만운스님 아래로 출가했다. 절 살림이 가난하여 운력이 많았고 교육체계가 바로 잡혀 있지 않은 때여서 8년이 걸려서야 대교과 이력을 마치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월정사에서 선발해 보내준 유학승이었다. 임제종 불교전문대학에서 3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와 월정사 종무소에서 잠시 사무를 보다가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1년간 시봉했다. 이후 강릉 보현사에서 6 · 25를 맞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보현사 주지를 지냈다.

1977년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 절을 창건해 주문진 동명사에서 투병 중인 지암스님(이종옥박사)에게 절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물으니 "보광리에 지었으니 보광사라고 하지"했다. 현재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절이다. 태고종 강원도 종무원장 등을 지냈다.



◇봄비 내리는 뜰을 산책하는 창조스님.



◇창조스님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참회하는 마음으로 미수를 지키고 있지만 돋보기를 쓰고 신문보는 일도 잊지 않는다.

앞에서 붉게 봄날을 장식
서 흠뻑 젖고 있는 모란을

가 너무 죄송스러워 잠시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

입었다손 사람마저 달라

백년 뒤엔 무슨 옷을 입

번째 행을 애써 해석하지 않
를 물어도 한사코 "그냥 이렇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야. 글
고 들면 노래가 재미없어.
몸 갈아입는 일이 죽음임을
이지 굳이 문자를 희롱하고

라 큰 차

할 지켜야

되는 전환점

뒤를 따질 필요는 없어. 죽
죽음을 잘 맞는 것 외에 뭐가
가…"

숨을 고르고 나서 설명을 이
본래 변하지 않는 것이다. 환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
라라 마음을 변화시켜 간다.
사는 이치일 수 있지만 본
잃어버리고 주변 환경에 따
보니 자신의 본래 정신이 없
그러니 자기 마음을 잘 붙
제자리에서 반듯하게 중심
도록 해야 한다. 변하는 것은
이치이지만 그 변화에 대응

하는 방편은 사람마다 천지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불성'이라거나 '본래심'이라거나 '법신'이라는 표현들이 다 주변 환경에 물들지 않고 부모이전에 이미 갖추고 받아 온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것을 잘 지키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스님은 힘주어 말했다. 말하자면 스님은 어느새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었다.

"지이불범(知而不犯)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길이야."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이 나쁜 것임을 알고 범한다. 스님은 나쁜 줄 알면 범하지 말아야 하는 도리는 도덕적 판단은 이미 잃어버린 것이다. 스님은 평생 알면서 범하는 일은 삼가고자 노력해 왔다.

"그런 노력은 언제부터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월정사로 출가해서 내전 공부를 하다가 상원사에 올라가서 한암 스님을 1년여 동안 시봉한 적이 있었지. 그때 한암 스님은 늘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범하지 말라고 하셨고 매사를 불평등하지 않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어. 또 한암 스님께서 인가하신 탄허 스님도 늘 바르게 사는 것이 수행이전에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지."

스님은 방문을 열고 비가 잦아진 뜰을 바라보면서 월정사로 출가하던 당시를 회고했다.

"그때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 학교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어. 동해 무릉계곡 삼화사 아랫마을에서 태어나 늦은 나이에 보통학교를 마쳤는데 중학교 공부는 할 길이 없었지. 그런데 삼화사 주지 스님이 월정사로 가면 공부를 시켜 준다고 하기에 그렇게 해 달라고 졸랐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생각에서 월정사로 갔는데 그게 출가의 길이 되어 버렸지. 절에서 강원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나는 참으로 멋진 사람 한 분을 볼 수 있었어. 푸른 두루막을 입고 갓을 높이 쓴 젊은 선비였지. 그 분이 바로 탄허 스님이야.

속가에서 이미 한학을 많이 공부하고 필체도 좋았던 그 분은 월정사를 거쳐 상원사로 가서 한암 스님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고 선방 수좌들에게 '금강경'을 강의했지. 나도 상원사 시절에 탄허 스님에게 강의를 들었는데 참으로 훌륭한 스님이야."

살아가는 구석구석이 다 번뇌다. 하지만 그 번뇌는 깨달음의 씨앗이라 했다. 인간의 양심에 떳떳하지 않은 일은 아예 행하지 말라는게 창조스님의 당부다.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천년을 수행해도 이룰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미수를 맞은 창조스님에게 봄비가 그친 후 똑똑 스러져 갈 모란들은 어떤 의미로 보일까?

"피어 있는 동안의 어여쁨이 지는 동안에는 부질없게 보이겠지만 꽃이 져야 내년에 또 봄이 오는 법이지."

글=임연태 기자 ytim@buddhapia.com

만 잘 지켜도 이 세상은 훨씬 밝고 따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쩌다 방송을 보면 무슨 게이트들이 그리 많은지…, 그 사람들이 그 일이 좋은 걸로 알고 했을까? 속으로는 나쁜 줄 알면서 그렇게 하거든. 이미 양심에 먹구름이 끼인 것이고 인간의 도덕에 대해 감각이 없어진 탓이겠지. 권력과 탐욕이 그렇게 하는 거야. 종교 이전에 사람마다 바르게 사는 길을 지켜야 해. 요즘엔 종교인들도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별하는데 있어 잣대가 모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더 가슴이 아파."

부지불식간에 지은 잘못 가운데 그리 큰 잘못은 없는 법이다. 진짜 엽기적이고 황당한 사건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 나쁜 일인 줄 알면서 저지르는 잘못들이다. 잘못인줄 알면 저지르지 말아야 하



설곡스님의 스님이야기

평곡스님

내가 스님을 처음 뵌 것은 60년대 중반 스님께서 입적하기 한두 달 전이었다. 평곡스님은 통도사 스님이었다. 스님이 해인사에 언제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팔만대장경을 지키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평생 그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대중이 잠든 시간에 장경각 야경을 돌았기 때문에 스님을 '야경스님'이라고 불렀다.

당신의 임종이 가까워짐을 아신 스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열반당(涅槃堂)으로 거처를 옮겨 달라고 부탁하셨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해인사에는 열반당이 있었다. 열반당은 성철스님이 계시던 퇴설당 선원 아래, 관음전을 한 면으로 하여 건물들이 'ㄷ'자 구조로 둘러선 곳 한 모퉁이에 있었다.

관음전은 강원의 윗반 스님들이 사용했고, 해인사에서 열렸던 종회에서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영암스님의 방이 그 옆에 있었다. 그 곁에 지월, 자운, 홍교 스님, 그리고 평곡스님의 방이 차례로 있었다. 그 맞은 편에는 채공(菜供)들의 반찬 일



을 도와주던 본연성 보살의 방이 있었고, 그 옆에 법정스님의 방이 있었다. 관음전의 뒤편 맞은 쪽으로 곡루(穀樓)가 있었고 법정스님의 방과 곡루 사이에 한 사람이 누울만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이 바로 열반당이다. 대중이 많이 모여사는 곳에 임종이 다가온 스님이 스스로 그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임종을 맞도록 준비해 놓은 장소다. 그러므로 그 곳은 사찰에서 가장 한갓진 곳에 있었다.

일생을 수행 외길에서 오직 생사문제라는 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온 수도자들이 자신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조용히 숨을 거두기 위해 들어가는 방이 열반당이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방이기도 하다. 그 방문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연결되는 곳이라고 생각되던 어린 사미 시절, 도량을 뛰어다니다가도 그 방문 앞을 지날 때는 다소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꽤히 걸음이 조용해지곤 하던 곳이었다.

세속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남을 의미하지만,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열반당에 들어온 사람이 있게 되면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대중들의 나무아미타불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누구나 평소보다 더욱 진지하게 자신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임종을 맞이한 사람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당시 법정스님은 화엄경을 독경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나에게 유별나게 숭고해 보였던 것도 바로 그 옆방이 열반당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요즘엔 수행자들도 임종이 다가오면 병원으로 가곤 한다. 평생을 생사문제 해결을 위해 공부한 수행자들에게 죽음이란 그다지 유별난 것이 아닐 법도 한데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보면 나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아야 할 수행자로서 무언가 마음이 석연치 않다.

평곡스님은 평생을 이름없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지키다가 가셨다. 그렇게 살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크나큰 원력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수행자로서 이름을 드날리려 했다거나 수행마저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렇게 이름없이 자신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은사스님이 통도사 스님이어서 본사가 같은 평곡스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안을 자주 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따라 갔었는데 한번은 성철 방장 스님께서 들르셨다.

"무섭능교? 무서울 것도 없데이. 죽는 기나 사는 기나 매 한가지 아잉교? 화두를 챙겨야 합니

"평생 대장경 지키겠다" 서원
"열반당으로 옮겨 달라" 입적

다. 다른 데 정신 쓰지 말고 우째든지 정신 바짝 차리고 화두를 챙겨 보이소. 화두 말고 딴 길은 없는 줄 알아야 합니다" 성철스님께서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지막을 경책해 주셨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스님은 열반당으로 자신을 옮겨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종에 이르러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것만해도 대단한 정신력이다. 큰스님이라고 불리던 분들도 임종에 이르러 힘들어 하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비하여 이름 없이 한평생 장경각을 지키다 가신 스님의 모습에서 욕망 없이 살다 가는 수행자의 아름다운 임종을 보았다.

평곡스님은 조용하게 마지막을 맞았다.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죽음의 방으로 들어가는 심정은 어떠했을까, 살아서는 다시 나올 수 없는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그 시절 스님을 뵈며 그런 생각을 했었다.

요즈음 사찰에서 열반당을 보기 어려워 아쉽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자신을 잘 챙기라고 조용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죽음에 승속이 따로 없겠지만 목숨 걸고 수행해온 수도자라면 임종에 다다라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구미 영명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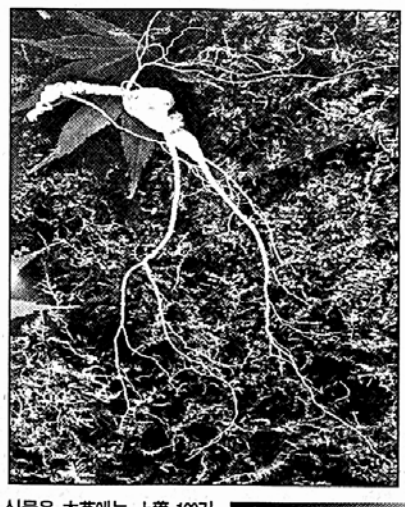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점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법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심마당 長腦山蔘